

온실가스 감축 실효적 정책 시행으로 기후문제 해결 선례 주도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약 50%)가 위치하고 있고 2019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701백만톤 중 154백만톤(2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기후환경 여건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도민 실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혁신적 탄소중립 우수정책을 시행하였다.



01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 광범위 확대로 충남도 리더십 확산

충청남도는 조속한 탈석탄 이행을 위해 2017년부터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 발표 및 국내외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2021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 확산을 위하여 세계적 기후 국제기구인 언더2연합과 함께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포럼’을 처음 개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주’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리더십의 중요성, 에너지 전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니콜라 스테전 영국 스코틀랜드 행정1장관, 헬렌 클락슨 기후그룹 CEO, 샘 키민즈 RE100 CEO 등이 함께 참여하여 탄소중립의 시급성·필요성을 강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장(20.12월 선정)의 자격으로 2021 언더2연합 총회(영국 글래스고)에 참석하여 지구 온도상승 1.5°C 이하 제한 및 '10년 수준 대비 '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충남도의 선도적 탈석탄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전세계 탄소중립을 확산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국내외 협력 기후위기 대응 주요내용

구분	구축 내용
대한민국 탈석탄 가속화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2017.10.) · 충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2018.10.) · 기후 비상상황 선포,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 선언(2019.10.) ·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2020.9.) · 전국 최초,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발표(2021.9.)
충남도 우수정책 전세계 확산	· 언더2연합 총회 참석(2021.11.) · 영국 COP26 특사 및 캐나다 기후변화대사 간담 추진(2021.11.)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및 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성과 공유
탈석탄 대정부 건의 추진	· 전국 화력발전소의 78%를 차지하는 인천·강원·전남 시도지사의 서명을 직접 받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 추진(2021.9.)



충남도 탈석탄 동맹 가입



2021 충남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2021 언더2연합 총회 참석

02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탄소중립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시민사회 단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충남 탄소중립위원회(87명)’를 출범시키고 기후·경제·정의로운 전환·수송·건축 등 8개 분과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의 도민 실천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환경 프로그램(1박 2일 숙박형 탄소중립체험 전문시설)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연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98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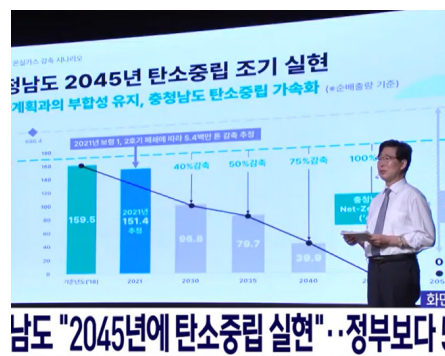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적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 기금은 재취업 훈련, 고용 승계, 에너지 전환 기업 유치, 주민 복지 사업,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확산 제도적 기반 주요내용

구분	구축 내용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본격 활동	· 충남 탄소중립위원회 8개 분과별 위원회 개최(2021.10.) · 충남 탄소중립위원회 발족식 개최(2021.12.) · ‘충남 2045 탄소중립’ 발표(2021.12.)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2020.6.~2021.6.)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2021.6.) · 공유재산 · 지방재정투자사업 · 공공건축 심의 이행(2021.7.~10.)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기획설계용역 추진(2021.9.~12.)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건축 공사 의뢰(2021.12.)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원 확보	· 기금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2021.2.)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운영계획 수립(2021.4.)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021.6.) - 충청남도, 발전소 소재 시군(보령 · 당진 · 서천 · 태안), 발전3사 · 2025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중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충남도 2045 탄소중립 발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업무 협약식

03

타시도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 탄소중립 우수정책 시행

전국 지자체 · 교육청 금고를 대상으로 ‘탈석탄 · 재생에너지 투자실적 지표’를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탈석탄 · 탄소중립 금고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탈석탄 · 탄소중립 금고는 석탄화력발전의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공공 주도 탄소중립 금융 모델이 되었다. 충남도는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71개 기관이 참여하고 239조 5,592억원의 재원을 탈석탄으로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후에 대해 도민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서부발전소와 협력하여 마을 공동시설에 쿨루프 시공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연간 5백여 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환경 교육센터 10개소에 총 2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특화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총 18,608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 충남도의 노력 등을 교육하고 더 많은 도민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적 교육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도민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총 18,636명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데 앞장섰다.

혁신적 탄소중립 우수정책 주요내용

구분	구축 내용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확산	· 전국 56개 자치단체 · 교육청 탈석탄 · 탄소중립 금고 선언(2020.9.)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전국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2021.2.) · 2021 P4G 지방정부 탄소중립 세션에서 금고 홍보 및 참여 독려(2021.5.)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확산 · 발전을 위한 환경부 회의(2021.6.)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부 정책으로 도입 건의 교육부 방문(2021.7.)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2021.3.) · 2021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2021.1.~12.) · 충남도·한국서부발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업무협약 체결(2021.5.)
맞춤형 지역환경 교육 환경 조성	· 지역환경교육센터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통보(2021.2.) ·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2021.1.~12.) · 지역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추진실적 검토 및 환류(수시)



2021 P4G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에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홍보 및 참여 독려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확산·발전방안 환경부·환경공단·시민 사회단체 회의



기후위기 안심마을(서천군 산동리) 쿨루프 시공 (시공 전 24.1℃ » 후 14.1℃)



예산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 내포문화 숲길) 교육 진행